

2024 갑진년 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 개최



신년인사회 때 경품 추첨에서 영예의 대상을 탄 권영순씨(65. 안동시 옥서1길 70)가 종합건강 검진권(식사 300만원)을 받아 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기운데 분이 권영순씨)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 주최 “2024 갑진년 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가 3월 2 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 흘에서 안동권씨 원로원, 국회의원, 시장, 경북도 의원, 안동시 의원, 각 파종회장, 지회장, 총무단, 능우회, 능곡회, 권리원, 부인회원, 안동시내 각 씨족회장협의회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행사장 앞에는 권영창 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해옥 대종회 명예회장, 권태호 전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권부옥 안동병원 상임이사, 황재천 TBC 대구방송 특임이사, 신성균 평산신씨 안동화수회 회장 등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대형 화환이 60여개 진열되었다. 이날 날씨는 영하 8도의 차가운 날씨 인데 불구하고 족친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행사장 입구에는 권리장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권리의 안동시의회 의장, 권광택 경북도 의원, 권리원 안동시 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권용수, 김의승, 김명호, 김상우 등이 입장하는 족친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다.

권기원 종친회 사무국장과 신정숙 아나운서 등 두 사회자는 고운 한복을 입고 진행을 맡았으며 장내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상주농악대가 신나는 사자춤놀이를 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철환 종친회장과 두 사회자는 참석한 내빈들을 일일이 소개하였다.

권영훈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능곡회가 20년 만에 안동권씨 본향인 안동에 5월 4일 시민문

동장에서 제33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안동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이어 본 행사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시조 묘소 망배, 상을례를 하였다. 권의의 시 의장은 축사에서 “오는 4월 5일 한식날 능동재사 춘향제와 20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5월 4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는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정달 원로원 고문은 격려사에서 “지난 수 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면서 “1981년 안동대안극장에서 첫 신년인사회를 갖는 것을 비롯하여 능골 진입로 개설, 낭중공 단소 이전, 안동과 서울에 난립되어 있던 각 종친회를 대종원으로 통합, 하나로 만들었다”며 지난 40여 년 동안 안동권씨 대종원에서 굵직한 일들을 처리했다고 회고했다. 권 고문은 이어 “안동은 권문의 본향(本鄉)이기에 안동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빛나는 문화를 꽂피워야 하고 선현들께서 이룩한 업적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상을 모시는 일에 더욱 큰 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권리장 안동시장은 축사를 하기 위해 앞서 무대 위에서 족친들을 향하여 큰절을 올린 후 “올해 신년화두를 배울줄줄 중력이 산(百折不屈 衆力移山)으로 정하고 백번 깨여도 굽하지 않고 힘을 모으면 태산도 능히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시민의 힘과 족친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동은 미래 100년의 도시와 성장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안동권문이 중심에 서야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행사로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온과일류, 쌀, 난로, 홍삼, TV, 냉장고 등 많은 상품을 추첨한 결과 영예의 대상을 안동병원 권부옥 상임이사가 내놓은 종합건강검진권(식사 300만원)을 탄 권영순씨(65. 좌윤공파. 안동시 옥서1길 70)가 차지했다. 이 건강검진권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호텔급 방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체 부위를 활용, 검사를 한다.

행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각 읍, 면, 동별로 분산, 인근 여리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종친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2024년(權紀 1095년) 신년인사회 명첩(名帖) 책1권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다음과 같다.

◆회장 권현종(權憲宗) ◆부회장 권중대(權重大) 권오업(權五疇) ◆감사 권정수(權正守) 권오명(權五明) ◆운영위원 권영보(權寧步) 권오상(權五常) 권오관(權五寬) 권태종(權泰鐘) 권순직(權純直) 권중옹(權重龍) 권영역(權寧億) 권태봉(權泰鳳) 권정유(權正裕) 권영문(權寧文) ◆사무국장 권태욱(權泰魯)

권영건 보도부장

1728년(戊申年, 영조 4년)에 “이인좌(李麟佐)의 난(亂)”에 대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것과 잘못된 정보로 자신이 역모의 혐의로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문(鞫問)을 받고 영조(英祖)의 특지(特旨)로 석방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이다. 병곡 선생은 반란 세력들이 당시 영남지역의 큰선비로서 명망이 높던 선생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꾸짖어 돌려보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한양으로 압송되어 영조의 친국을 받게 되었으나 국문(鞫問) 과정에서 선생의 참된 선비로서 진실되고 의연한 답변 태도에 감동한 영조가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궐문 닫는 것을 중지시키고(留門) 당일 즉시 방면을 명하여 돌아오게 되었다. ‘무신록’은 “이인좌의 난” 당시의 국내의 변란에 관한 상세한 기록뿐만 아니라 역모의 틈바구니에서도 끽끗이 천명(天命)을 지녔던 한 성리학자의 사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 제3차 연토회(발표자 권 대산 36세)의 주제는 “병곡 선조(屏谷先祖)의 ‘무신록(戊申錄)’”이었다. 병곡(屏谷) 권구(權穀 27세, 1672~1749, 불천위)는 가일마을 입향조 참의공의 9세손으로 일찍 과거를 단념하고 처사(處士)의 삶을 살면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정진한 당시 영남의 대표 학자였다.

‘무신록(戊申錄)’은 병곡 선생의 문집인 “병곡집(屏谷集)”에 수록된 일기로서

2024년 정조공파 정기총회 성대히 개최



권순복 회장



고 밝혔다. 권순복 주손은 축사에서 “인사 말을 할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며 “순복 현 파종회장이 말없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뒤 “올해는 족보를 디지털화하나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곧 이어 권오길 사무국장은 작년 10월 11일 족친 38명이 영천 은혜사와 경주 일원 유적지를 답사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주요 추진현황 18건을 경과보고 했다.

이날 총회는 권오길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및 파조님에 대한 배례, 상을례, 회장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의안심의,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순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경로화합잔치, 유적지 답사, 16명에게 장학금 지급, 8명에게 출산장려금을 드렸으며 연말에는 청·장년부 주관으로 송년의 밤 행사를 치렀다”고 했다. “올해는 족보를 디지털화하고 수단족보(收單族譜)를 편찬 발행할 계획이며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딸, 며느리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으나 거수로 표결을 부친 결과 부결이

되었고 채택이 되지 않았다. 둘째 60세 이상 정조공파 종원으로 남자, 며느리가 사망 할 경우 부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딸, 사위는 해당이 안 된다. 셋째 갑진년 족보 3권 1집당 5만원씩 모두 1천권을 제작, 판매하기로 했다. 정조공파는 1843년 계묘보, 1890년 경인보, 1955년 을미보, 1977년 정사보, 2000년 경진보 등 5회에 걸쳐 파보를 제작하였으며 2024년 갑진보를 발행하면 20년마다 한 번씩 발행, 간신히 셈이다. 넷째 경로잔치는 오는 6월 20일 목요일, 유적지 답사는 오는 10월 11일 금요일 떠나기로 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에게 ‘안동권씨 정조공파 종회’ 책자 1권씩과 간 고등어 한 손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총회를 마친 종원들은 파종회 별당 맞은편에 있는 ‘까치 솔단지 솟불촌’식당으로 이동, 솟불채

지고기를 걸들이 점심식사를 했으며 점심값은 권순복 회장이 모두 부담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4년 부호장공파 신임 임원들 상견례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현종) 2024년 신임 임원 상견례가 3월 4일 오전 11시 안동시 서동문로38에 위치하고 있는 ‘농민회자식당’에서 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현종 신임 회장이 지난 1월 30일 새로 선출되고 임원들도 새로 임명됨에 따라 파종회 발전을 위해 상견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16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하고 5명은 개인 별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권태호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이날 상견례에서 권현종 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파종회의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겁지만 일이 생기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돌아가면서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소개가 끝나자 권리장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안동권씨종보를 10부 구독, 운영위원회에게 배부했으나 종보가 다소 부족하자 5부를 더 신청, 15부를 매달 운영위원회에게 배부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 이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때 내용물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앞으로는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기로 했다. 권리장 부회장은 회의하기 좋은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회의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견의하자 시정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지난 번 총회 때 의결한 토지 매각 대금은 이자 가 가장 높은 금융권에 정기예금을 하기로 결정했다.

부호장공파의 신임 임원 1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권현종(權憲宗) ◆부회장 권중대(權重大) 권오업(權五疇) ◆감사 권정수(權正守) 권오명(權五明) ◆운영위원 권영보(權寧步) 권오상(權五常) 권오관(權五寬) 권태종(權泰鐘) 권순직(權純直) 권중옹(權重龍) 권영역(權寧億) 권태봉(權泰鳳) 권정유(權正裕) 권영문(權寧文) ◆사무국장 권태욱(權泰魯)

권영건 보도부장



정인홍의
『내암집來庵集』 권5, 「사이상자辭二相衡」; 광해군이 의정부 좌찬성(종1품)의 벼슬을 7월

24일 條(아본 257~258쪽)에서 258쪽 첫째 줄 상단에서 “九二曰…”이라 하여 효사(爻辭)를 인용하고 있는데 역경 9:2는 없고 6:2가 있기 때문에 이는 착오일 것이다. ‘익(益)’괘(卦)는 『역경』 42째 괜: ䷢ 풍뢰의(風雷益) ; 이익유왕 이설대천(利有攸往 利涉大川) 우리가 함께 모은 힘으로 어딘가에 더해주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고 큰 강을 건너자. 위에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모아왔던 것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해준다. 민중들이 크게 기뻐한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이어서 그 길이 밝게 빛난다. 이런 마음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웃자리에 바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고 큰 경사이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크고 거칠지만 우리에게는 그 강을 건널 나무배가 있다. 세상을 도울 정의의 강을 건너자. (세상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바람처럼 움직여 매일 매일 세상을 돌아본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늘이 베풀고 땅이 키우는 일을 돋는 것이다. 하늘이 도우셔서 그 유익함이 끝이 없고 선한 영향이 어디까지 같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넓고 선한 마음이라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도로 하는 것이 지혜이다)

상월 풍뢰의 군자이 견선즉천 유과 즉개(象曰 風雷益 君子以 見善則遷 有過則改) 바람처럼 유연하게, 유례처럼 강하게 우리는 도울 일을 보거나, 잘못을 개선해야 할 때 바람처럼 움직이고 우례처럼 강하고 실효성이 있는 일을 했다.

그런데 인용된 효사(爻辭) “유부혜

심(有惠心) : 믿음이 있고 은혜(德)를 베풀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九五의 것이 이는 九五가 읊을 것이다’는 대민관(對民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공물(貢物 : 토산물)에 대한 방납(防納) 엄금을 비롯한 세금제도의 수취체제(收取體制)와 토지제도의 재정비로 정전법(井田法)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재난을 당한 후 세상의 토지가 공토화(公土化) 되었을 때(경계가 불확실해졌을 때) 새롭게 토지분배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주장과 함께 정인홍의 산림 정치사상과 주장 및 실천 등이 가지는 유교 민본적 정치사상(『서경』 『하서夏書』) 민유방본(民唯邦本 本固邦寧) ;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다)과 실학적 요소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임진왜란으로 겨우 살아남은 여민(餘民)에 대한 보민(保民)과 환과고독(鰥寡孤獨 : 흙아비, 과부, 부모 없는 고아,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은 나라와 관(官)에 반드시 훔민(恤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백성(민중 : 서민庶民 ; 四民 : 士·農·工·商)에게 『주역』의 「익(益)」괘와 함께 『예기』 『예운』 편 검찰 구대타로 이승만의 부정부패(부정선거) 독재정치 북진통일 멸공학살 정치 12년, 반공을 국시(國是)로 5·16 박정희와 12·12 전두환·노태우 군사쿠데타 군사독재 1987년의 6월 학살 이후 군정종식 30년과 문민정부 이후 IMF 참여정부(노무현)에서 다시 이른바 MB·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6개월 간 연인원 1,695만 명의 촛불시위 탄핵 정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성호(星湖) 이익(李灝, 1681~1763)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실학의 경세 치용(經世致用) 학파가 주장한 사상·실천이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조기에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그리고 ‘민주공화국 제4부’라고 하는 ‘언론’의 개혁’까

지도 이루어 내지 못하였고,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유능한 전 서울시장 박원순과 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의 자살(의문사?)를 겪었고, 민주당 내 후보경선과 최근까지 이른바 ‘수박과 X 파리 논쟁’ 등으로 이재명 후보로 정부를 계승해 내지 못하고, 검찰 구대타와 이른바 ‘운석열 검찰독재 무능한 정부’를 탄생시킨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지나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온고지신 법고창신의 현실분석과 개혁 미래 비전의 정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 구호 ; 문구) “억강부 애대동세상(抑強扶弱 大同世상)”에서 『주역』과 ‘익(益)’ 효사(손상익하損上益下) ; ‘위를 덜어서 아래 서민들을 돋는다’와 『예기』 『예운』 편의 ‘대동’이 그것이다.

물론 이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국토전체가 황폐화 되었을 때를 이용하여 행자의 정전법으로 당시 대토지소유의 중앙귀족에 대해 보다 민중의 입장에서 토지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는 세종시대 이후로 사적으로 은광(銀鑛)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국제무역(주로 중국과의 조공무역)에서 당시 중국은 본위 제도였으므로 무역에서 도 은이 필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중은 철저히 배제된 중국의 사치품을 훈척(勸威)이나 왕실, 부마가(駢馬家)들이 독점하여 사오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훈척파들이 사사롭게 은광을 개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부(富)의 독점현상이 더욱 심해져 빈부격차 커지자, 정인홍은 하층민중도 은광을 개설하는 데에 참여하게 하여 민중을 살리자(活民)하자는 주장은 하였다. 『내암집』 권2, 『사장봉사辭義』 『將封事』 /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다음호에 계속)